

자활기업 디지털역량 강화 '맞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북광역자활센터
온라인 시장 진출·판로개척 위한 협약 체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소담스퀘어 전주에서 전주·전북지역 자활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북지역 84개 자활기업과 다양한 자활사업 종사자에게 디지털전환을 위한 단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기업의 라이브커머스 제작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역량 강화를 돋구기로 모았다.

나아가 디지털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자활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시장진출을 선도할 우수한 자활기업을 발굴하는 등 디지털커머스 산업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자활기업의 디지털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우수 자활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양 기관이 상생·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과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거점기관인 소담스퀘어 전주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지역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소담스퀘어 전주에서 전주·전북지역 자활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경찰청, 신임수사관 수사부서 적응 위한 소통 나서

수사지휘부 소개·청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등 가져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상반기 수사부서에 배치되는 신임수사관 86여 명과 수사지휘부, 사이버수사팀장 23명과 함께 27일 본청 온고을홀에서 소통의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내기 수사관들을 위한 자리로, 전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한 노하우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수사지휘부 소개 및 인사, 청장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 자리 통해 신임수사관들이 수사부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주요

부서에서도 함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강 청장은 참석자들과 오찬을 마련하고, 신임수사관들에 대하여는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선물하며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당부했다.

강황수 청장은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은 '국민중심 책임수사'로,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다. 전북경찰은 항상 도민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생각하고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며,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살핌의 치안활동을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상반기 수사부서에 배치되는 신임수사관 86여 명과 수사지휘부, 사이버수사팀장 23명과 함께 27일 본청 온고을홀에서 소통의장을 마련했다.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안전한 통학로 제공 위한 단속 추진

학교 주변 환경 조성을 정비하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학생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해 완산구의 힘찬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완산구는 28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학교앞 불법 주·정차 또는 불법 노점상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등·하교시 어린이 사고 예방과 안전한 거리 조성할 목적으로 마련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완산구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이루기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 이동식단속카메라를 이용

해 순찰하고, 등·하교시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완산구는 스쿨존, 학교 주변 통학로의 과다 진열된 점포앞 진열 물건, 불법 노점상, 주정차 방碍물 등 노상적자물까지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학교 주변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 평화로운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전주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강습비를 재능기부 형태로 후원하고, 참여 아동은 2만 원 강습료를 내

전주시·전주시태권도협회, 아동 태권도 지원사업 시행

전주시는 아동들의 신체·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주시태권도협회와 손잡고 태권도 배움의 장을 열었다.

이에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 태권도협회 소속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으며, 전주시 비만·저체중·사회성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기회 삼아 태권도 배움의장을 마련해준 전주시태권도협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습지 다양한 매력 사진에 담아요"

전북환경청, 고창 운곡·정읍 월영 습지 사진공모전 개최

전북지방환경청은 생생한 습지의 자연환경을 알리기 위해 '제2회 고창 운곡·정읍 월영 습지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진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습지의 사계절, 습지의 다양한 야생 동·식물'을 주제로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의 참가신청서에 출품사진과 함께 전북환경보전협회 이메일(wildleejh@e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카메라 사진 부문과 스마트폰 사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 작품수는 부문 상관없이 1인당 3매 이내로 제한된다.

촬영시기는 2023년 촬영 작품이어야 하며, 겨울작품은 2022년 11월~12월에 촬영된 작품까지는 출품이 가능하다.

작품 선정 결과는 환경, 사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공모전 대상(환경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전북지방환경청장상, 1점) 등은 시상과 함께 총 650만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여기서 전북환경청은 "응모작품 수나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작품 선정 수는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타 응모방법, 작품규격, 응모 시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환경청(www.me.go.kr/smg)이나 환경보전협회(www.epa.or.kr)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환경전시회 자연환경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습지의 다양한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전북지역 습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봄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전주시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27일 센터 민들레홀에서 '2023년 봄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가졌다.

오는 3월부터 운영되는 봄 학기 교육은 22개 일반교育과정과 5개 구청지 원교育, 13개 내일배움카드제교育, 7개 국도비직업훈련교育 등 총 45개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청지원교育에선 '노인인지활동 책 놀이지도사(3급)', 커피박민들기, 드론 지도사양성교育, 이동요리지도사 2급' 등 완산구 3개 과정과 덕진구 2개 과정이 개설된다.

센타는 또 내일배움카드제 교육으로는 밀반찬조리와 감성캘리그라피, 기초의상제작, 정리수납전문가(2급), 요양보호사, 실무에 가까운 한글 등 13

과정을 운영한다.

국도비직업훈련 교육과정은 '한스타일메이커스 창업과정, 사회복지 행정 실무자 양성, AI진료체험지도사, 운수인증보마케터, 조리실무자 양성과정, 호텔 객실 수납전문가, 인지케어지도사 양성과정'이 마련된다.

국도비 지원 교육과정은 전주시 거주 구직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알리기 위해 교육과정 설명회가 마련됐다. 취업을 위한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여성 취업률이 향상되고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